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인간 관계 갈등서 기억할 것들



* 결론 내리지 마세요. 마음의 습관은 알아내고 정리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상황을 딱 딱하게 만들면 더 힘들어져요.
* 기다려 보세요. 반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갈등을 키워요. 올라오는 마음을 잠시 접고 기다려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시간이 약이에요.
*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여요. 그럴 때 말하면 상처가 되고 갈등이 커져요.
*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편을 가르지 말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 상처를 소화하세요. 상처는 기꺼이 받으면 복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받으면 해가 됩니다.
* 봐주세요.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봐주는 겁니다. 끝없이 봐줘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해결 할 게 없어요. 갈등만 없으면 돼요. 갈등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돼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⑥ 백호은침

백호은침, 미인 속눈썹에 내린 하얀 눈송이

무심히 차통을 개봉했는데 폭포처럼 밀려오는 향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찻잎을 바라보며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리 귀한 차인연을 주시나 무한감사를 드렸습니다. '논어'에 공자가 소(韶)라는 음악을 듣고는 삼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저는 차의 향기를 대하고는 세상 근심을 잊었습니다.

차의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는 행위는 차라는 존재와 차를 마시는 존재가 전면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의 향기는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맡고 귀로도 맡고 피부로도 맡고 감촉으로도 맡지요. 차의 향기는 온몸으로 맡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차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향기란… 꽃과 나무들이 진한 향기가 아니라 아주 옅은 향기, 오래 머문 향기가 아니라 슬쩍 슬쩍 스쳐 지나간 여린 향기, 그런데 너무 높고 깊은 산속이라서, 꽃과 나무가 수천 수백 종이라서, 수천 수백 종의 여린 향기가 겹겹이 겹쳐지다보니 진해진 그런 맑은 향기… 아침 이슬, 바람 내음, 새의 날개짓, 하늘에 떠가는 구름, 천연원시림의 숲내음 이런 만가지 향기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를 만들었는데 백곡만향이라고요, 백가지 계곡에 만가지 향이 들어있는 차이다, 백곡(百谷) 만향(萬香)을 품은 맑음이 있는 차이다, 맑은데 향기롭고 담백한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깊음이 있는 차이다. 그래서 이 차를 소개할 때 제가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무릎 꿇린 차이다."

저를 무릎 꿇린 차는 바로 "대백호은침"입니다. 백호은침은 백차 중의 최상 등급 차입니다. 백차는 하얀 차, 화이트 티라고 해요. 불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백차라고도 하고, 흰 솜털이 찻잎에 가득 덮여있다 그래서 백차라고도 합니다.

백호은침(白毫銀針)은 '하얀 솜털이 보송한 은빛 바늘'이란 뜻입니다. 차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지요? 영어이름은 White Tip Silver Needle인데요, 팁(tip)은 새싹을 말합니다. 팁이 많을수록 프리미엄 차이지요. 백호은침은 오로지 팁으로만 만듭니다. 팁을 한자로는 싹 아(芽)라고 합니다. 차나무의 찻잎은 처음 싹이 났을 때에는 또르르 말려 있거든요. 잎으로 펴지기 전의 싹만을 따서 차를 만들면 차의 모양이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하며 살짝 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솜털처럼 차싹 표면에는 하얀 솜털이 빼곡하게 덮여있지요.



백호은침차

백호은침, 백차 중 최상 등급
잎으로 펴지기 전의 싹만으로
'백곡 만향' 품은 맑음 있는 차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백호은침은 더욱 더 원료가 중요합니다. 찻잎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펼쳐 말리고, 문화(文火)라고 해서 뭉근한 열로 찻잎의 수분을 증발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찻잎이 좋지 않으면 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찻잎이 크고 토실토실하고 표면에 솜털이 많은 차나무 품종으로 만듭니다. 또한 차의 수분만을 조절해서 차를 만드는 제다법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만들면 또르르 말린 찻잎의 겉표면은 보송보송 하지만 찻잎의 속은 수분이 과다하게 남아있어서 차가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백호은침은 '1년이면 차, 3년이면 보약, 7년이면 보물' 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만든 차를 저축해야 합니다.

백호은침의 원산지는 복건성 복정 (푸 성 푸딩) 과 복건성 정화(푸 성 정허)입니다. 복건성 복정의 차는 북로은침이라고 부르고 복건성 정화의 차는 남로은침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무릎 꿇린 차는 백호은침 중에서도 윈난 대엽종으로 만든 '대백호은침' 입니다. 찻잎이 크면 영양소가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윈난성 대엽종 차나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백호은침은 윈난 경곡 고죽산의 나무 수령 500년 고차수 봄 첫 싹으로만 만든 차입니다. 이른 봄에 차의 첫 싹만을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따는 일도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차나무가 천연원시림의 오백년 고차수라하니 그 귀함이 가히 상상이 되겠는지요.

백호은침을 우릴 때는 투명한 유리개완이 어울립니다. 왜 그런 퀴즈 있잖아요. 잘 다듬은 나무막대기를 주고 어느 쪽이 뿌리이고 어느 쪽이 가지 끝인지 알아맞히는 퀴즈요, 백호은침은 약 3센티 정도 길이에 뾰족한 모습이어서 마른 찻잎을 보면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데, 90-95도씨 물에 우리면 줄기 쪽은 아래로 향하고 잎 쪽은 위로 향해서 찻잎들이 똑바로 일어섭니다. 이것을 찻잎이 춤을 춘다 해서 차무(茶舞)라고 합니다. 투명한 개완에 찻잎이 춤추는 것을 감상하면서 찻잎이 1/3정도 일어섰을 때 1포, 1/2정도 일어섰을 때 2포, 3/4 일어섰을 때 3포 이렇게 농도를 가늠하며 차를 마시면 즐겁습니다.

1930년대 이태준 작가의 '황진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크로 옷을 해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여인들 사이에 오롯이 한 여인이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 장신구라고는 옥가락지 하나뿐인 그녀가, 달빛에 빛나는 배꽃처럼 군계일학으로 빛나더라.' 청초하고 단아하고 담백한데 좌중을 압도하는 한국미인의 기품을 생각하면 꼭 백호은침이 떠오릅니다. 초생달처럼 살짝 휜 은침의 모습이 미인의 속눈썹처럼 보입니다. 백호는 속눈썹에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너무 맑아서 내가 고요할 때는 백 가지 계곡에 만 가지 향이 나지만 내가 시끄러울 때는 밍숭맹숭하기가 맹물과 같아서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한, 그런 차가 바로 미인차 라고도 부르는 백호은침입니다.

〈잇다it茶 대표〉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구천사
• 주 지 : 혜경 (속명 : 김희수)
• 주 소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봉1길 60-1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